

스님들 풀뿌리민주주의의 '앞장'



◇성타스님 ◇설조스님 ◇정각스님 ◇무공스님 ◇현고스님 ◇태일스님 ◇진옥스님

시민·환경운동 적극참여 '깨달음의 사회화'

민선 지방자치 실시 2년 이 흘렀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지자체들의 지나친 개발의욕 때문에 국토를 훼손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작용과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정신으로 지역 시민·환경단체를 이끌고 있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어 불교사회 운동에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지역 시민·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스님은 성타장각 설조스님 등.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은 지난 93년 대자연환경보존회 이사장에 취임하면서부터 환경운동에 매진해 왔다. 95년 지방자치 실시를 전후해서

는 경주경실련 공동대표, 공명선 거실천시민운동 경주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경주 고도의 문화재·환경 보호는 물론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부산불교자비연장 정각스님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93년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본격적인 시민·환경운동에 나섰다. 현재 맡은 직함만해도 '위천공단 결사지부 부산시민 총괄기부부' 공동대표, '환경산살리기 비상대책회의' 공동대표 등 7개에 달한다.

불교사 주지 설조스님은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95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회

"국가시험 평일 실시 발언 외전"

이회창대표 유감표명

신한국당 이회창대표는 8월 28일 최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주일 국가시험 반대' 발언과 관련해, '주일시험은 원칙적으로 종교활동에 어긋나고 8월 18일 국동방송 토론프로그램에서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그 진위가 일부와전된 것'이라면서 '아무튼 본의 아니게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이날 어느 방송객의 즉석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주일 시험이나 종교활동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다만 본인 자신도 필요일 때는 좀 쉬면서 조용히 일을 풀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불가피하게 일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하게 되기도 한다고 개인적인 설명을 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7개 교계단체는 8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시험 평일 실시' 발언에 대한 이대표의 공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8월 20일 이대표에 이어 국동방송의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민련 김종필총재는 정부의 일요일 시험과 관련해, "전부 없애는 것은 힘들겠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가능한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해 여론을 냉정했다.

불교TV까지 방화 손길

다행히 불 안번져...야간출입 통제등 대책

최근 잇따른 사찰방화에 이어 8월 25일 오전 10시경 불교TV 스튜디오에 방화미수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화재는 1층 스튜디오 외관 방음벽에서 발생했으나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TV측은 "8월 22일에도 스튜디오의 걸유리가 반경 15cm, 인유리

봉암사 인근리조트 경북도 강행

조계종에 공문
경북도는 50만명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봉암사인근 리조트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했다.

이 공문은 총무원과 봉암사가 이 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 답변에 리조트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여

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매장문화재 발굴 '전담기구' 필요
고고학자 28명 설문

매장문화재 발굴전담기구의 형태는 법안이나 공공기관 성격의 발굴조사의 공익성과 운영기금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안일 경우 자본유치를 위한 기관운영의 안정성 확보

"관람료등 교권수호 공동대처"

교구본사 주지모임
조계종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회장 설조)은 8월 26일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월례정기모임을 갖고 관람료 분리징수, 사찰농지법, 교권수호 등에 공동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16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후

일선사 방화미수범 1천만원 현상수배

서울지방경찰청 사찰화재전담반(반장 김상봉·형사과장)은 최근 경찰청 일선사 방화미수범의 동태를 작성, 서울 시내 각 경찰서에 배포하는 등 범인검거에 나섰다.

수배된 용의자는 나이 35~40대 초반, 신장은 162~165cm이며 상고형 턱머리, 짙은 눈썹, 전라도 말씨 등의 특징이 있다. 이와관련 경찰청은 방화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을, 범인을 검거한 경찰은 1계급 특진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경은 8월 26일부터 서대문, 북부, 도봉경찰서 등 방화위험성이 높은 경찰서를 주축으로 4~6개 중대 병력을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찰일대에 투입, 방화예방 및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전화 (02)362-2549

8월 1일 국립공원내 일부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하며 불거져 나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문화재관람료와 종왕입장료의 분리징수 문제가 한달을 넘기는 가운데 아직 해결의 기미는 안보인다.

종단은 종단대로 '강경대응' 방침을 세웠지만 관련 회의 소집을 하지 않았고 관리공단은 이사장이 문제성 발언을 하며 개별 사찰을 접촉해 교계를 자극하고 있다.

해당 사찰들은 지난 한달간 지역 여론에 시달리며 총무원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만 기다려 왔다. 8월 26일 열린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 이 "총무원은 시급히 본사주지회의와 관람료 사찰주지회의를 통해 분리징수를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결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관람료를 인상한 관람료위원회가 아직 소집되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동안 종단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종단행정의 핫집을 노출시켰다는 비난의 여지를

이번기회에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큰 안목'으로 접근하러 한다는 시각도 있다. 두 시각 다 교계의 정서상으로는 타당성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답이 될 수 없다. 담당 관람료와 입장료를 내야 하는 입장객과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지역민들의 여론때문이다.

'분리징수'의 해답찾기

보였다. 총무원과 관람료위원회 관광사찰주지회의등의 긴 사장의 '불세공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종단 일각에서는 이 문제와 연대선을 연결 지어 해석한다. 또 이미 오래전부터 불세력을 안고 있었던 '합동징수 분리징수'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지역 여론은 사찰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총무원이 보다 단단한 행진력을 통해 불교계의 의지를 공단측에 명확히 보인다면 분리징수 문제의 답은 쉽게 찾을 수도 있다. 공단에 맞서 합동징수를 강행하고 있는 사찰들과 여주군청이 신복사의 분리징수를 보류한 사례 속에 해답이 있다고 본다.

7일 청정운동 논산대회

청정운동추진위(총재 서문각)는 '97 청정운동실천 논산대회'를 7일 오후 2시 육군 제2훈련소 호국인문사 야외법당에서 개최한다.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남지심씨(작가·우리는 선우 이사장)가 강연한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한국의 불가사의의 만분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경주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불기 2542(무인년) 달력 보급 안내

365일 밖에 걸린 달력은 불교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교과서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2년도 달력 '산사의 향기(大·小)·사진 안장현', '동자승(大·小)', '나한도(小)'를 주문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단채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사찰명, 그리고 법회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 크기 : 小(26×26.5cm) 大(30×31cm)
- 매수 : 표지 포함 13매
- 특수고급제본
- ※ 전본이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 738-8682
(야간) 011-265-0923